

정철, 「성산별곡」

오동(梧桐) 서리들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오동나무에 비친 서리가 내리는 밤의 차가워 보이는 달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돌아 오니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나진들 그려흘가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가 낮이었으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호주(湖洲) 수정궁을 뉘라서 옮겨 온고
 호수 속 수정으로 장식하였다는 화려한 궁전을 누가 옮겨 왔는가(그 정도로 아름답다)
 은하를 뛰어 건너 광한전의 올랐는 듯
 은하수를 뛰어 건너 달 속에 있다는 궁전에 올라 온 느낌이구나
 짝 마즌 늘근 솔란 조대(釣臺)에 세워 두고/그 아래 비를 씌워 갈 대로 더더 두니
 짝이 맞는 늙은 소나무는 남시터에 세워 두고 /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대로 던져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 어느 스이 디나관디
 여귀꽃과 흰 마름꽃이 핀 물가에 어느 사이에 지나건대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히 빛머리에 다하세라
 정철이 16세부터 27세에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머물렀던 성산 맞은 편 언덕 위에 있는 집 앞의 용소라는 연못에 배가 달았구나.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쇼 머기는 아히들이
 녹색의 풀들이 있는 맑은 강 주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어워 계워 단적(短笛)을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좀 썬야 니러날 듯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부니 /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니씩에 나온 학이 제 기술 브리고 / 반공(半空)의 소소 쫓 듯
 연기에 나온 학이 제 보금자리(둥지)를 버리고/ 공중에 솟아오를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추칠월(秋七月)이 도타 호디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가을 7월이 좋داث했지만
 팔월(八月) 십오야(十五夜)를 모다 었디 과흔고
 팔월 보름 밤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칭찬할 만하다)
 섬운(纖雲)이 사권(四捲)히고 물결이 채 잔 적의
 잔구름이 사방에서 걷히고 물결이 잔잔할 때에
 하늘의 도든 돌이 술 우히 걸러거든 잡다가 빠딘 줄이 적선(謫仙)이 현스홀샤
 하늘에 둥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거든 이태백이 강에 비친 달을 건지러 갔다가 빠진 이야기가 야단스럽다고 할 것인가(그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분위기 좋다)

공산(空山)의 싸힌 님흘 삭풍이 거두 부러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빈 산에 쌓인 잎을 거둘 듯이 불어(거듭 불어)
 켜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수로와 옥으로 고졸 지어
 하늘이(조물주가) 호사로워(꾸미기를 좋아하여) 옥으로 꽃을 만들어(눈꽃)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많은 나무들을 꾸며냈구나.
 압 여흘 7리 어러 독목교(獨木橋) 빗겼는디
 앞 여울물이 가로(길게) 얼어 독목교를 비스듬히 지나는데

막대 멘 늘근 중이 어니 델로 간닷 말고
 막대를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다는 것인가(지나가는구나)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넘드려 현스 마오
 산골에서 즐기는 늙은 이의 이 부귀를 야단스럽다 하지 마오(알리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초조리 이실세라
 얼음과 눈으로 만든 세계(=면양정가:경궁요대, 옥해은산)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오(비밀리에 즐기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조용하다)
 산중의 벗이 업서 한기(漢紀)를 빠하 두고
 산 속에 벗이 없어 책을 쌓아두고
 만고 인물을 거스리 헤여하니
 오랜 세월 속의 인물들을 (시간)거슬러 생각하니
 성현도 만궤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성인과 현자도 많고 기개와 품모가 있는 사람도 많기도 하구나
 하늘 삼기실 제 곳 무심홀가마는
 하늘이 생겨날 때 생각없이 만들었을까마는
 엇디훈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흐얏는고
 어찌된 것이 시대나 그때의 운수는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옴도 그지업다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기산(箕山)의 늘근 고불 귀는 엇디 싯돏던고
 허유가 귀를 엇지 싯엇던가(속세의 부귀가 무상하여 은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일표(一瓢)를 썰틴 후의 조장이 7장 높다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했다는 기개와 품행이 가장 높구나
 인심이 늦 곳투야 보도록 새롭거늘
 인심은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로운데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세상 일은 구름처럼 험하고 사납기도 하구나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엇그제 빛은 술이 어느 정도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슬궤장 거후로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술잔을)기울이니
 마음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마음의 멧힌 근심이 적으나마 있겠는가(조금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시울 언저 풍입송(風入松) 이야고야
 거문고 시울(현)을 얹어 풍입송 타자(연주)꾸나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저 브려셔라
 누가 손님(자신)인지 누가 주인(김성원)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장공(長空)의 켜는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먼 공중의 학이 이 골의 신선이라
 요대(瑤臺) 월하(月下)의 형혀 아니 만나신가
 신선이 산다는 곳에서 (김성원과 학이)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손이셔 주인드려 닐오디 그디 귀가 흐노라
 손님이(내가) 주인에게(김성원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신선인가 하노라”